＊李 養 鎬 공군 참모총장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주변국들과 영토 및 해양자원 확보문제로 인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주변국의 위협과 관련하여 침략세력을 국경선 이전 및 해상에서 격퇴하는 「거부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공중조기경보기의 도입은 당초 도입할 예정이었던 E-3 항공기가 작년에 미국에서 생산이 중단돼, 현 단계에서 도입은 불투명합니다. KFP사업이 종결되는 90년대 후반에 조기경보체제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군 조종사 유출을 막기위해 항공수당을 매년 20%씩 증액하고 있으며, 전역억제방안으로 대령·중령 정원의 추가 승인 및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인사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李 大 熙 병무청장

향방예비군의 폐지와 동원예비군의 축소여부는 유사시 전투력 판단에 따른 부대편성과 적정규모의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국방부가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만, 현행 예비군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일각에서 高학력자와 부유층의 자제들이 징병검사에서 상당수 불합격판정을 받는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는 신체조건과 성장환경에 따라 면제 처분된 경우입니다.

현재 병무청은 兵務부조리의 척결을 위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와 같은 체육인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징병검사 판정기준을 언론에 완전 공개함으로써 어떤 역종으로 처분될 것인지를 미리 예단(予斷) 판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泰)

國産 첫 잠수함-『이천함(李阡艦)』進水

- 국내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의 凱歌 -

국내 최초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 건조된 현대식 잠수함이 진수됐다.

해군은 12일 慶南 巨濟대우조선소에서 盧泰愚대통령과 金鐵宇 해군 참모총장 金宇中대우그룹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천2백t급 잠수함「李阡艦」의 진수식을 가졌다.

盧대통령은 이날 진수식에서 치사를 통해『조선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하는 잠수함을 마침내 우리손으로 만들었다』면서『이것은 우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의 커다란 개가이자 海軍力발전의 새기원을 이루는 쾌거』라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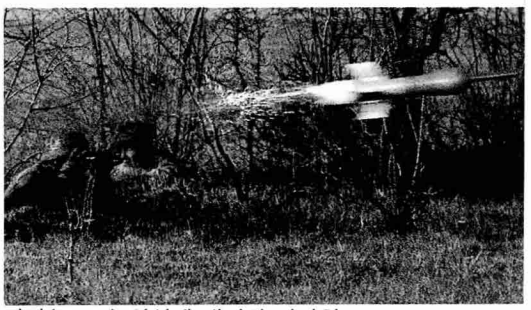
이날 진수된 이천함은 대우조선이 지난 87년 정부와 계약을 맺고 독일 HDW사로부터 설계와 기술을 제공받아 건조한 T209급 디젤 추진 잠수함이며, 건조에 약 1천4백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함은 麗蒙전쟁당시인 고종43년(1256)에 전선 20여척과 수군 2백여명을 이끌고 아산근해로 출동해 해상을 통해 진격, 온양지역에 주둔해 있던 몽고군을 물리친 고려의 명장 李阡장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이천함은 수중 최대속도가 북한보유 잠수함보다 2배이상 빠르다. 또 어뢰와 기뢰등으로 무장하고 30명 이상의 승조원이 약2개월간 단독작전을 펼수 있으며 북한보유 25척의 W급 및 R급 잠수함보다 작전수행능력 및 제반성능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佛, 한국과 Milan 対戦車 유도탄 면허생산 희망

– 프랑스와 다비드 Aerospatiale 그룹 부사장 한국支社 창설1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밝혀…



미란(Milan) 최신예 대전차 미사일

세계적인 명성의 엑조세(Exocet) 미사일

프랑스 국영기업체(1970년 발족)인 Aerospatiale社의 한국支社 창설 1 주년 기념 리셉션이 10월 20일 서울 하이야트(Hyatt) 호텔에서 1백50여명의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金 揚 한국 支社長

프랑스와 다비드 그룹 부사장

이날 리셉션에서 프랑스와 다비드(Francois David) 아에로스빠시알 그룹 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한국 해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自社의 엑조세(Exocet) 미사일을 70년대 중반에 갖춘 세계 최초의 몇 개 국가임을 밝히면서, 그동안 한국이 Alouette III, VIP용 AS332 슈퍼퓨마(Super Puma), AS 350 B2 Ecureuil 헬기등을 구매한 것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 프랑스와 부사장은 한국에 Airbus 중형 여객기를 판매하게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최초 위성인「우리별 1호」가 아리안(Ariane) 4호 발사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Aerospatiale 한국支社 창설1주년 기념 리셉션이 10월 20일 하이야트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작년 창설될 당시 Opening Party를 열지 못한 支社로서는 실질적으로 창설 기념식을 겸한 셈이 되었다. 이날 기념사에서 金揚 한국지사장은 AS-30 공대지 레이저 미사일과 Milan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MM15TT 中·短거리 함대함 미사일 등의 부문에서 첨단 기술 이전 의향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발사되었다며, Aerospatiale 그룹의 4개 부문(항공기, 헬기, 미사일, 인공위성) 모두가 한국과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어 프랑스와 부사장은 한국 업체와의 공동협력과 관련하여 ATR 100인승 항공기의 공동생산 및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면서, 최근 아프리카 지역전과 中東戰에서 성능이 입증된 Milan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한국내에서 한국기업체로 하여금 면허생산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 그는 2.5톤급 Ecureuil과 4.5톤급 Dauphin 헬기들의 정비지원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내에 정비시설을 갖출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리셉션 당일(10월 20일) 오전에 삼성항공과 합의각서 교환이 있었음을 밝혔다. (泰)

"자기 나라를 지키는 병기도 생산못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 吳源哲 前 청와대 경제2수석 초청 조찬 간담회 -

방산학회가 주최하고 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한 이번 조찬 간담회에서 吳源哲 前 경제2수석은 지금은 재정비의 시기로, 국방부와 방산업체는 새로운 대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苦心해야 할때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한국형 품목 개발에 더욱 주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든 전제(前提)의 출발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병기도 못 만드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思考』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거듭 거듭 역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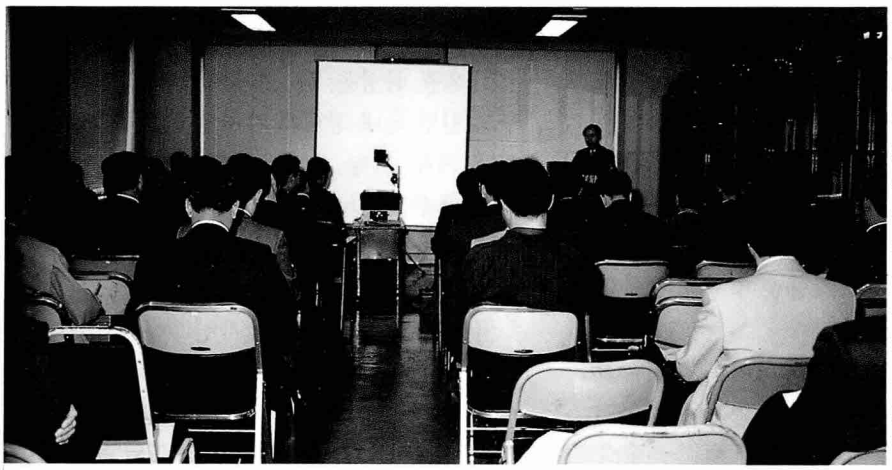
한국방위산업의 발자취와 향후 비전(Vision)을 주제로, 吳源哲 前 청와대 경제2수석 초청 조찬 간담회가 10월 23일 서울 캐피탈 호텔에서 朴 熊 국방부 제2차관보를 비롯한 정부관계관과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방산업체 대표 등 1백여명의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어 吳 수석은 오늘날의 많은 변화를 언급하면서, 방산업체에서 데모가 발생하는 기상천외한 세상이 되었음을 개탄하며, 이는 利敵행위로써 이해할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또 정부에서 해주기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역설하였다.

끝으로 그는 민수품과 병행하여 연구개발하는 길밖에 없으며, 전자기술연구가 필수적임을 거듭 역설하면서, 각자 자기분야는 자기가 책임져야 살아남을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과제와 자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泰)

産·軍 연구개발 관련규정 토론회 열려…



운용자와 개발자간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 및 방산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産·軍간의 연구개발 관련규정 설명 및 토론회가 元 容 虎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이사를 비롯한 방산업체 실무책임자들과 교육사령부 鄭 明 和 처장 등 관계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9일 防振會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연구지원棟 완공

2000년대 국가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지원棟(사진)이 완공되어, 10월 20일 준공식을 가졌다.

항공우주연구소의 연구지원동 공사규모는 면적 57,000평의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건축면적 3,600평이다.

연구지원동이 준공됨에 따라 항공우주분야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술개발과 시험을 위한 종합시험동, 아음속 풍동, 인공위성 조립시험동 등 항공우주관련 연구시험동이 건설될 계획이다.

이번 준공식에는 「2000년대를 맞이하는 항공우주 기술」이란 주제로 일본우주과학연구소 소장(Ryojiro Akiba)과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盧五鉉 교수) 초청, 기념강연회가 병행하여 열렸다